

우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현대불교

고개를 끄덕이시라는 평판
빅만평생통장

● 세는 거래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에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 090-027-492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발행인 김 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희/ 인쇄인 김규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광고국 737-0692/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경색정국이 1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이다. 대통령이 각계 원로를 만나고 영수회담이 열리는 등 대화의지의 명분받기가 한창이다. 좀더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지한 대화를 통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3자의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처님은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을 내리듯이, 듣는 사람의 실정을 알고 거기에 알맞은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귀족사회의 말을 알고 써 왔으면서도, 일반 민중들의 언어인 마가다의 사투리로써 법을 설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편집자 주)

남을 충고하려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 다음 다섯가지를 생각하고 충고해야 한다.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고, 알맞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다. 둘째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셋째,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다. 넷째, 의미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성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중지부경전)

자주 모여 정의를 버린다...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선정(禪定)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사람(善)을 권장하고, 남을 헐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김(悲)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喜)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증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버림(捨)을 권장한다. (화엄경)

육상에 끌리고 소망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한 아는대로 떠돌아다니다. (스태니시슬레)

화합이란 서로 자주 모여 정의의 쟁론하고 상하가 화동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해 어기지 않으며, 법을 받들어 근기할 바를 알고 그 재도를 어기지 않는다. (징아집 유행경)

여래는 중생의 상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은 법을 설한다.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배불기를 권장하고, 생활에 규범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지키도록 권장한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인욕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정진

하나로 포럼 선정회 25일 출범 15면

불교문화대학 늘고있다 13면

관광사찰은 문화포교 도량 7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동 봉정사에서 발견된 현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고려후불벽화. 고려시대 영산회상도로는 유일한 이 벽화는 채색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등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인동-봉정사=고영배 기자)

안동 봉정사에서 발견 '국보급 영산회상도'

最古 고려벽화

東大 문명대교수 1450년 이전 제작추정

지난 16일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 불상 뒤에 걸려 있던 아마타후불벽화(가로 3.6m 세로 4.18m)를 보수하기 위해 때아내면서 발견된 대형벽화는 현존 우리나라 최고(最古)이자, 고려시대 영산회상도로는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벽화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화면 배치구도, 불상군 형태, 채색 등이 고려불화의 양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 화면 상단 중앙에 석가상존상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10대 제자, 보살들이 주위와 삼존 아래 배치되어 있어 14세기 전반기의 미륵상경변상도의 배치와 비슷하며, 미륵상경변상도가 1350~1450년 사이의 양식임을 감안할 때 이 벽화는 빠르면 14세기 후반기에서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불상군 형태나 채색 역시 1450년을 하한(下限)으로 하는 불화 특징과 비슷해 현존 최고(最古)의 고려벽화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봉정사 후불벽화를 직접 관찰한 문명대교수(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장)는 "이 벽화는 고려불화의 진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현존 최고(最古)의 초대형 후불벽화"라며 "현재로서는 사찰에 봉안된 가장 오래된 벽화이면서 고려불화 가운데 영산회상도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해방이후 최대의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한영우 기자)

노동법시국 혼란 '법회 차질'

자선탁발 2월말로 연기... 새연등회 수계도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시국혼란으로 불교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명동과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참석해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족이 하나' 입을 깨닫는 등재대비 자선탁발 행사가 2월말 동안거해제 이후로 연기됐다.

조계종 사부회는 현시국 상황에서 대규모 야외법회 및 행사 기획이 어렵고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불자위원들의 모임인 새연등회(회장 박상규)는 지난 16일 성도회를 맞아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회인 및 불자당원 수계법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노동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는 농성에 합류키로 해 법회를 설(28) 이후로 연기했다.

또 외환은행불교영우회(회장 이재민)도 지난 15일 창립 8주년 기념법회 및 성도회 할 예정이었던 불행기보 예정했으나, 법회와 할아정진을 병행하지 않고 기도회로 축소해 진행했다.

대선후보자질 거론

월주스님, 국민통합 중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12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지역감정을 초월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으며 △분당정치에 몰리지 않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22일 총무관을 예방한 이한동의원과의 대화에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경제정의·도덕성을 양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선포

'97 문화유산의 해 선포식이 지난 2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축하공연에 이어 열린 선포식 행사에서는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의 문화유산의 해 선포와 한병삼 집행위원장의 대통령 축하인사 낭독, 고병익 조직위원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축창(祝詞), 영산송 상영 등이 이어졌다.

선포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 임창순 문화재위원장, 이세기 국외문화재위원장,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단체장, 시민,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5개년계획 수립

월주총무원장, 4대 중점사업 발표...자문위원회 구성도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0일 "종단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해갈 것이며, △정법교화 △총무원정의 체계화 △승가교육제도 정착 △민족문화 창달 등을 올해의 4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월주스님은 불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를 전법의 해로 정하여 불자들을 조직화하고 비불자들에게 대한 포교를 강화하며, 계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법의 해와 관련해 월주 총무원장은 주요지역의 사찰을 전법도량으로 지정하고 전법교화의 중심도량이 될 불교종합회관의 착공, 전국불교지도자대회 개최 및 신도입문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구체사업으로 제시했다.

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월주스님은 "총무원정 체계화를 위해 주요행정업무의 정상화를 올해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각종 법인의 종단 등록 유도, 사찰재무관사의 정예화·유형별 주제감사를 실시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월주스님은 또 중앙승가대학교 김포캠퍼스 이전불사 본격 추진, 하급 설치의 확대 및 비구녀 전문학원 개설, 행자교육의 내실화와 승가대학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승가교육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찰환경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1988년 7월 15일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르스님/법어/모음집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일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르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르스님들의 말이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을 말한 깨달았다.

여시아문 주소: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02) 737-0696

1988년 7월 15일

삶은 썩기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97년 4월/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1988년 7월 15일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짧은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으로 넘어서 경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게다가 산이 막히면 남고, 강을 건너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안과 짐작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보다 전념과 무성으로 깨달음의 반야(般若)로 전념(轉念)과 규장의 관(觀)으로 깨달아야 한다. 반야의 필요, 규장의 길. 그것이 바로 규장경 사주제이다.

— 밝은 중에서 —